

한우협회, 2015년도 '우리한우판매점' 모집

전국한우협회가 2015년도 '우리한우판매점' 사업에 착수한다. '우리한우판매점' 사업은 한우를 100% 판매하는 전문점을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고 선정점은 '우리한우판매점'이라는 신뢰를 얻고, 한우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선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 추천을 받아 신청서와 추천서, 제반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서류심사 및 신청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우구매서류, 원산지 표시 등 정기적인 현장심사를 거쳐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데,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 평가관리를 받아야만 선정점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한우판매점으로 선정되려면 먼저 한우를 100% 판매하는 음식점, 정육점으로 육우, 젓소, 수입산 등을 같이 판매하거나 타축종 수입산 판매업소는 제외된다.

최근 3개월간 거래명세표, 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한우를 구매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원산지관리(식육표시사항, 개체식별번호표시), 매장관리, 위생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리한우판매점에 선정되게 되면 선정점 마크·홍보물이 배포되며, 한우자조금 사업에 홍보 및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정점 홍보가 이루어진다.

2014년 284개 업소가 선정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 사업관리국은 4월 23일~5월 7일까지 도지회 및 시군지부 추천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5.11~5.22일까지 도별 현장심사를 진행해 6월중 선정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협회 사업관리국으로 하면 된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4. 22]

한돈자조금, '한돈 사랑의 돼지저금통' 후원 이벤트 전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한돈사랑 캠페인 중 하나인 '한돈 사랑의 돼지저금통' 후원 이벤트를 한돈닷컴(www.han-don.com)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돈 사랑의 돼지저금통은 한돈닷컴 회원들이 한돈닷컴에 접속해 출석체크를 하거나 댓글을 달고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에 따라 한돈닷컴 회원들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책에 따라 한 번에 최대 300포인트까지 지급되며 1P당 1원으로 책정한다.

매년 총 1,200만 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한돈 사랑의 돼지저금통의 현재 기부 현황은 총 81,364,690포인트이다. 2015년에는 현재까지 총 82,207명이 참여해 올해의 목표액 2,158,680포인트 중 36%가 달성됐다.

이렇게 모인 한돈 포인트는 소피아 농아올림픽 국가대표를 후원하거나 런던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를 후원하기도 했으며, 작년 2014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도서 4,000권을 후원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2015년부터는 한돈요리를 소외된 계층에게 전달하는 “골드빛레이스 한돈 쿠킹캠페인” 등의 재능기부 활동에도 함께 사용된다. 사랑의 돼지 저금통 후원 및 기타 자세한 내용 확인은 한돈닷컴 홈페이지(www.han-don.com)를 통해 가능하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4. 06]

양계협회, ‘종계산업 발전방안 모색 좌담회’ 개최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육용 원종계 및 종계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가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개최한 ‘종계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종계산업 관계자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계협회의 종계산업 현안자료에 따르면 국내 육용 원종계의 최근 5년간(2010~2014년) 전체 수입량(90만9344마리) 가운데 미국(69.5%)과 영국(30.5%)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에 달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AI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5월 중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지만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4월에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 해제는 빨라야 8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국내 원종계 및 종계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연진희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국내에도 우수한 유전능력을 갖고 있는 원종계 및 종계가 있다면 수입국에서 AI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생산자단체와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원종계·종계 국산화 연구개발(R&D)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원종계 수입국을 찾아야 한다”면서 “원종계를 생산하고 있는 남미국가를 통해서도 물량 확보가 가능하지만 수입위생조건 등 검역절차를 마련하는 데만 2~3년이 걸린다”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선 종계산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 위원장은 “육계산업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계산업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며 “계열화농가가 불합리한 조건에서 종계를 사육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계열화업체와 농가 사이의 타협점

을 찾는 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2015. 04. 22]

낙농육우협회,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 전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4월 7일 산림청이 실시 중인 수목지원사업을 통해 묘목 1만본을 지원받아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 전개에 나섰다. 금번 공급 수종은 소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산수유를 비롯 11종의 묘목으로 도(연합)지회에 공급되었다.

손정렬 회장은 “축산시설 주변에 급격한 도시화 팽창과 유동인구의 증가로 목장환경 미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농가들이 더욱 자발적인 자세로 식재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김봉석 전무는 “당초 우리협회는 산림청 수목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협회에서 실시 중인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의 취지를 감안하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묘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산림청으로부터 확보한 묘목 수량이 전국 도(연합)지회가 희망하는 수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국적인 나무심기 활동 확산을 위해 개인신청 공급방식에 의하지 않고 도(연합)지회 단위로 물량을 배정하여 전국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림청 수목지원사업을 비롯,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낙농목장 나무

심기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하였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이 전개될 수 있다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집중적으로 유도해나가고 있는 목장환경 개선활동과 더불어, 낙농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4. 13]

사슴협회, ‘사슴의 날’ 행사 개최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는 4월 4일 제8회 사슴의 날(4월 3일)을 맞아 충남 공주시 계룡산 입구에서 사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녹용탕 시음회 등이 진행됐다. 또 계룡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등산용 손수건 등 홍보 판촉물을 배부하며 국내산 녹용의 우수성을 알렸다.

한국사슴협회 정유환 회장은 “국내산 녹용 소비가 확산돼 사슴 사육농가의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2015. 04. 10]

축단협, 영연방 FTA 대책 이행여부 집중점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영연방 FTA 대책에 대한 여·야·정 합의안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축단협은 지난 4월 7일 이병규 회장 취임 이후 첫 공식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각 사안마다 우선순위를 마련,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에도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최종적으로 마련된 여·야·정 합의안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고 미이행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축산업계 요구사항에 대해 재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의 새 권고안으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지자체의 가축사육거리제한과 양분총량제 도입 움직임 등 각종 환경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또 AI·FMD에 대한 정부의 근본대책 수립과 함께 축산정책자금 금리 추가인하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축단협은 주요 사업실적 홍보와 함께 축산단체간 각종 자료 및 활동사항 공유를 위한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키로 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5. 04. 10]

나눔축산운동본부, '다문화가정 축산체험' 행사 개최



(사)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이기수·이병규)는 4월 3일 농촌 다문화가정(결혼 이민자)의 부모와 자녀 80명을 경기 안성팜랜드로 초청, 축산체험 나눔행사를 가졌다.

충북 보은과 충남 당진에 거주하며 경종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들은 안성팜랜드에서 가축 먹이주기·트랙터 마차타기·승마체험·치즈만들기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축산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기수 상임공동대표는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농업·농촌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체험목장에서 축산을 쉽게 이해하고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농촌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축산체험 나눔행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축산현장으로 초대할 계획이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15. 04. 08]